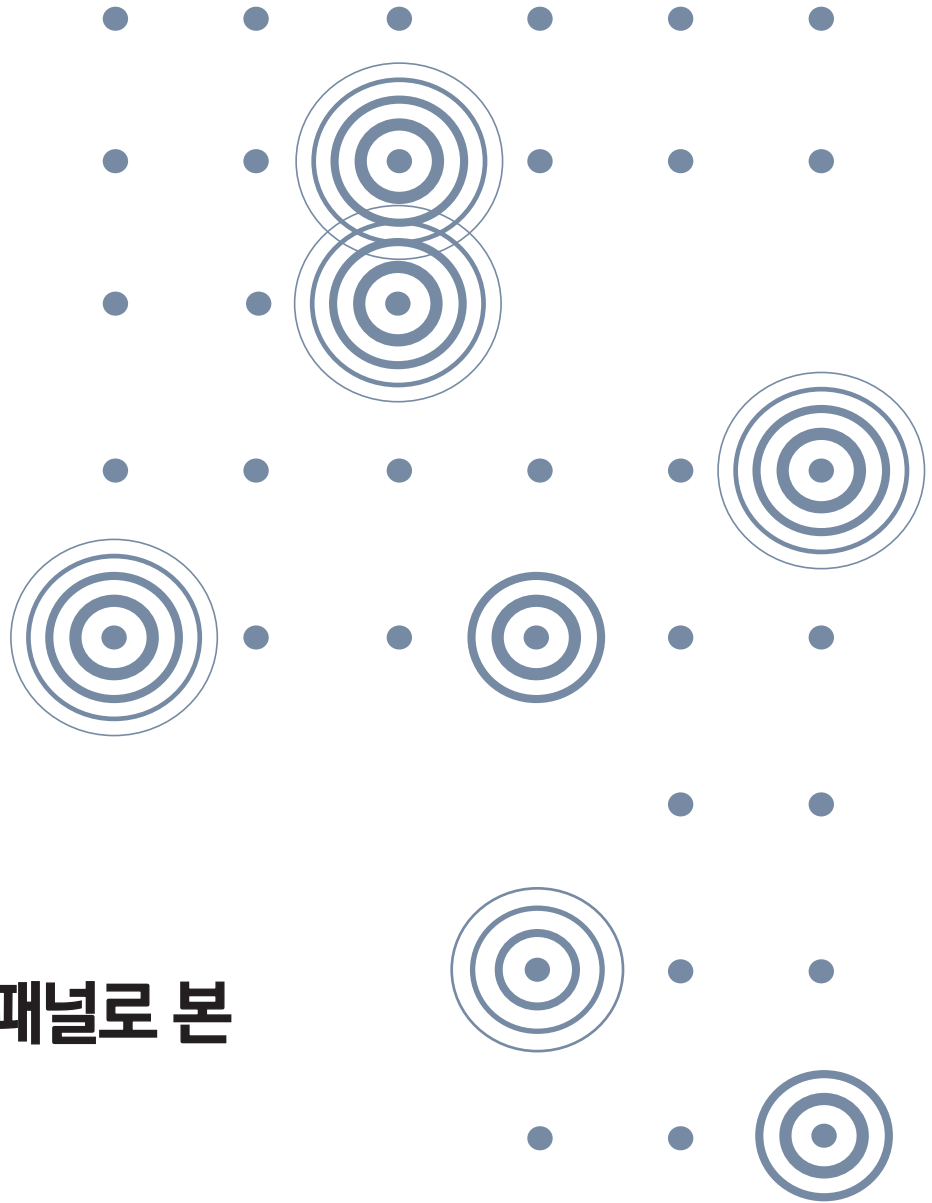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91호 2024. 3. 4



2022 서울청년패널로 본 청년의 삶

변금선

부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원

류아현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91호

2022 서울청년패널로 본 청년의 삶

발행인 오 균

편집인 백선혜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4년 3월 4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3. 4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91호

2022 서울청년패널로 본 청년의 삶

변금선 부연구위원
02-2149-1136
gsbyun@si.re.kr

박민진 연구원
02-2149-1108
farnia@si.re.kr

류아현 연구원
02-2149-1249
ah.yu@si.re.kr

요약	3
I.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개요	4
II. 서울 청년의 이행기 특성과 일, 주거	7
III. 서울 청년 삶 여건과 정책 인식	11
IV. 서울 청년 삶 모니터링 방안	15

요약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희망두배통장, 청년 자활예산 등 혁신적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청년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청년의 삶을 살펴보고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다차원적으로 분화하는 서울청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를 시작하여 2023년 3차년도 조사를 진행하고, 2021~2022년 조사결과와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청년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서울청년지표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리포트는 2022년도 2차 서울청년패널조사 기초분석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패널조사 홈페이지(<http://syys.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청년 삶 실태와 정책 욕구 파악 위해 서울 거주 청년 대상으로 매년 청년패널조사 시행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청년패널조사를 추진하였다. 서울 청년패널조사는 이행기 청년 삶(교육, 일,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의 다차원적 변화 양상을 다년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패널조사이다. 조사의 모집단은 2021년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며, 2022년 유효표본은 총 5,265명(위성패널 182명 포함)이다.

서울 청년 34.2%는 타 지역 출신, 다수는 미혼, 부모와 동거 47.5%...고용률은 65.8%

2022년 기준 18세 이후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34.2%이며, 교육 수준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청년 중 미혼은 87.0%였으며, 가구 유형은 부모 동거 가구가 47.5%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 34.3%, 기타 가구 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제 활동상태는 고용률은 65.8%, 실업률은 10.5%, 니트 비율은 25.6%였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소득 빈곤율 37%, 1인가구 월세 52.7%...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지도·만족도 높아

서울 청년의 개인소득 빈곤율은 37.0%, 자산 빈곤율은 55.6%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소득 빈곤율이 높았고, 1인가구에서 자산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유형별 점유 형태의 경우 부모 동거 가구는 자가 비율이 53.5%, 1인가구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5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중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앞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는 소득지원 26.9%, 고용지원 2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I. 2022 서울청년패널조사 개요

I 서울시·서울연구원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서울청년패널조사 수행

서울 청년 삶 실태와 정책 욕구 파악 위해 서울 거주 청년 대상으로 시행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패널조사로, 서울 청년행복 증진 위한 청년정책 기초자료 마련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를 추진함.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8조 청년정책연구, 제7조의2 청년실태조사 시행 등, 2015.1.2. 시행)를 근거로 함
 -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청년 삶의 다차원적 변화양상을 다년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tudy)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패널조사임. 서울 거주 청년의 이행기 주요 과업(교육, 일,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과 삶의 실태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기초데이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서울청년패널조사 시행 이후 지역 차원에서 청년의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을 잇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산시는 2022년부터 부산청년패널조사를 시행함. 부산청년패널조사는 청년이 부산시를 떠나는 원인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 청년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한편, 한국보다 먼저 청년정책을 추진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청년 대상 패널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조사는 청년기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전생애 삶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인 조사로는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국가종단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NLS), 미국 미시간 대학 산하기관인 조사 연구 센터(Survey Research Center)의 성인이행조사(Transition into Adulthood Supplement, TAS), 호주 국립 직업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NCVER)의 호주청년패널(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LSAY) 등이 있음¹⁾

1) 미국 NLS 조사는 1960년대 중반 시작된 국가종단조사로, 고령 남성, 중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여성 등 4개 인구집단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경험을 조사함. 현재 3개의 코호트(NLSY97, NLSY79, NLSCYA) 조사가 유지되고 있음. 미시간 TAS 조사는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패널 가구에 거주하는 18-28세 청년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심리적 기능, 가족 형성, 동거, 유년기 역경, 고용과 소득 등을 조사함. 호주의 LSAY 조사는 199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호주 청년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학교의 대규모 대표 학생 샘플을 활용하여 교육 및 훈련, 직장, 재정, 건강, 사회활동 등의 내용을 조사함

- 2022년 서울청년패널 유효표본은 1차년도 조사 응답자와 신규표본을 포함해 총 5,265명
 - 2022년 서울청년패널 유효표본은 원표본 3,762명, 원표본 중 위성패널 182명, 신규표본 1,321명을 포함하여 총 5,265명임. 이 조사의 분석대상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182명을 제외한 5,083명²⁾. 조사영역은 청년의 독립과 가족형성(결혼), 가구유형, 교육·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에 따른 삶의 변화 등으로 구성함



[그림 1] 서울청년패널조사의 데이터 구조

구분	내용
모집단	2021년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내국인(기숙사 거주자 포함, 집단거주시설 거주 내국인 제외)
조사대상	2022년 만 19~35세 청년 5,194명(2020년 사전조사, 2021년 1차년도 조사 응답자), 신규표본 1,321명
조사기간	2022년 8월 20일 ~ 2022년 12월 29일
조사방법	비대면 전자조사
표본추출	표본추출틀 통계청 집계구 활용(집계구 내 조사대상 가구 선정)
최종 유효표본	2022년 기준 19~36세 청년 5,265명(위성패널 182명)

- 조사방법은 전면 비대면 조사, 패널마모에 대응하고자 신규표본 구축
 - 조사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청년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 비대면 전자조사로 진행함
 - 패널마모에 대응하고자 신규표본을 구축하였으며, 신규표본은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제1차 서울청년패널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표집하였고, 표본설계 전문가 및 연구진과 협의하여 진행함. 이와 더불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군복무 등으로 패널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위성패널로 구분해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

2) 위성패널 182명 중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사유로는 일자리 관련이 28.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 15.2%, 거주 환경 개선 14.5%, 결혼, 독립 등의 이유 10.9%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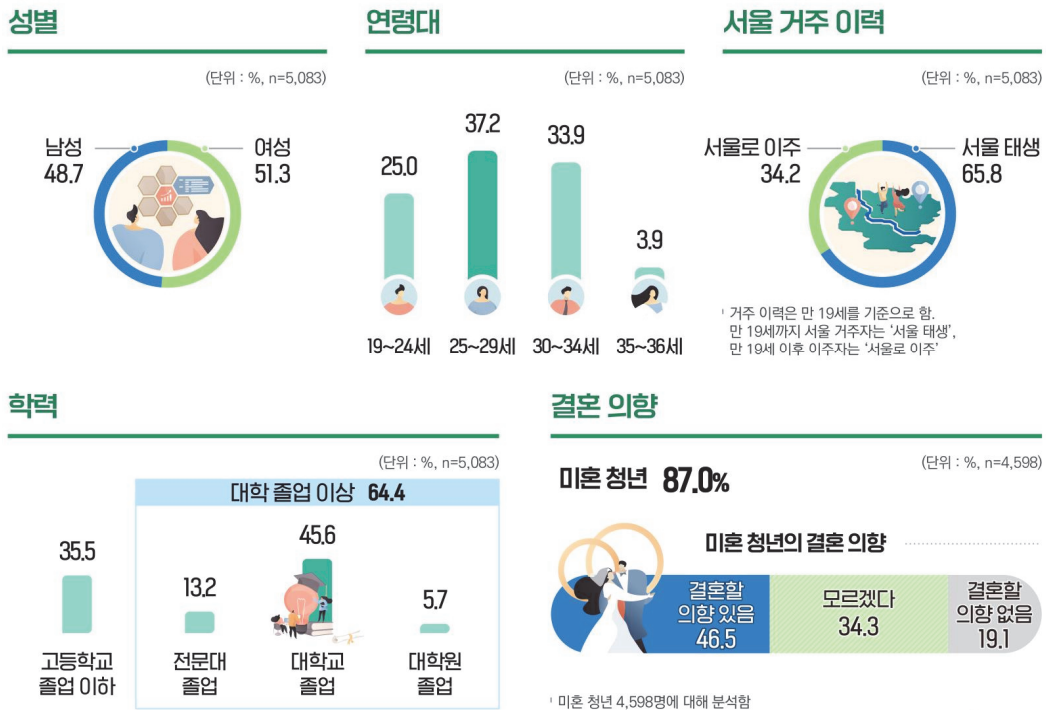
- 2024년부터 서울청년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울청년 행복증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
 - 2023년 3차년도 조사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022년 2차년도 조사 참여자 5,265명 중 4,501명 완료하여 전년 대비 85.5% 유지됨
 - 2023년 7월,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2024년부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청년영향평가와 성과측정 등 추진 예정. 이에 2024년부터 서울청년 삶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청년지표를 마련하여,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지표를 수집하고,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인단위 지표와 연계해 모니터링할 예정

II. 서울 청년의 이행기 특성과 일, 주거

I 서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서울 청년 대부분 미혼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비중도 높은 수준

- 청년 87%는 미혼으로 그중 46.5% 결혼 의향 있어...서울 이주 34.2%, 대학 졸업 이상 64.4%
 - 2022년 기준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서울 청년의 성별 분포는 여성 51.3%, 남성 48.7%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25~29세(37.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서울에서 태어난 청년(서울 태생과 만 19세 이전 서울 이주자)은 65.8%이며,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34.2%였음
 - 교육 수준의 경우,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등 대학 졸업 이상이 64.4%로 가장 높았음. 서울 청년 중 미혼은 87.0%이며, 미혼 청년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은 46.5%,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은 19.1%였음



[그림 2] 서울 청년의 이행기 특성 (2022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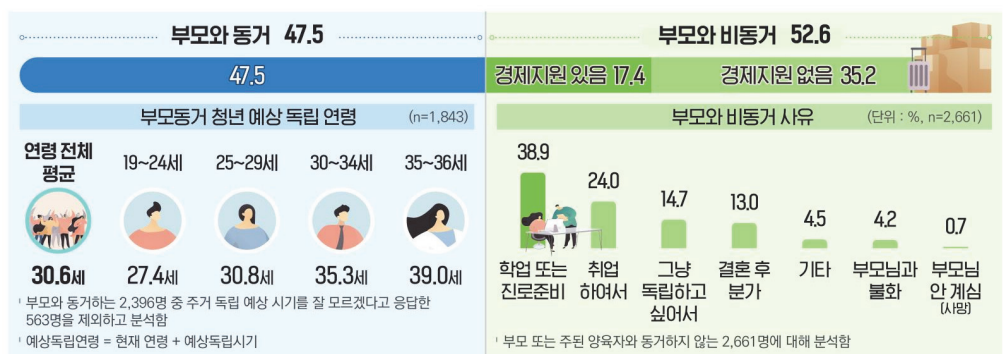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 지연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절반 가까워

- 청년 가구 중 부모와 동거 47.5%…예상 독립 나이 30.6세, 비동거 이유는 학업과 취업
 - 서울 청년의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가구가 47.5%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 34.3%, 기타 가구 6.9% 등의 순으로 높았음. 독립 특성을 보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은 52.6%였으며, 그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은 17.4%,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은 35.2%였음.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예상 독립 나이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 이유로 학업 또는 진로 준비(38.9%)와 취업하여서(24.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가구 유형



부모 동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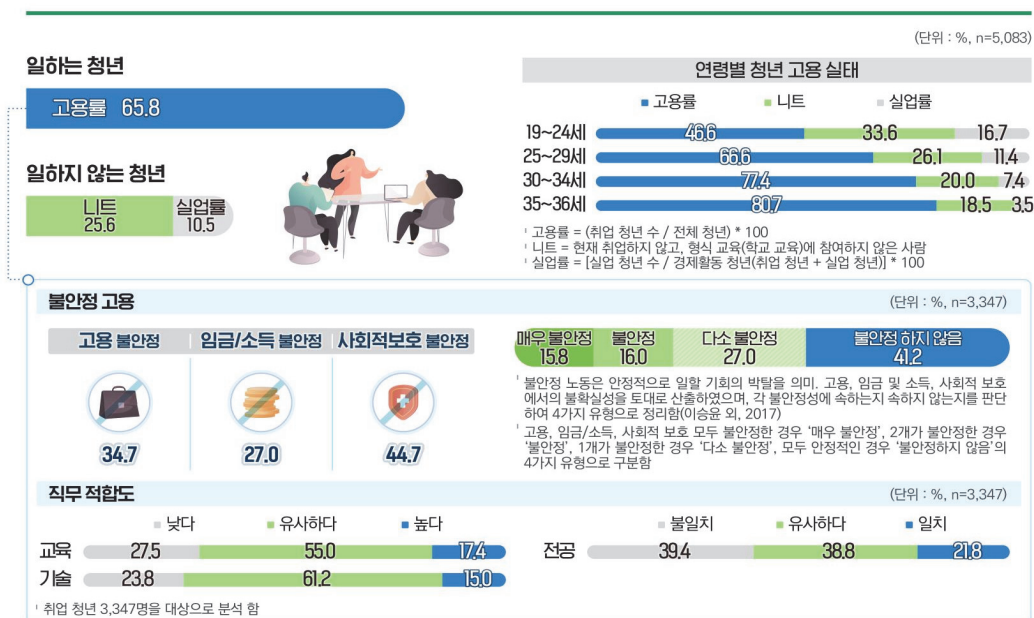
[그림 3] 서울 청년의 가구 특성 (2022년 조사)

I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와 일자리

서울 청년 대부분 일하고 있으나, 미스매치 수준 높아

- 고용률 65.8%, 니트 25.6%...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뚜렷, 하향 취업 27.5%
 - 고용률은 65.8%, 실업률은 10.5%, 니트 비율은 25.6%였음. 취업은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일주일에 1시간 이상, 1개월 이상)가 1개라도 있을 경우를 의미하며(단, 주된 일자리 고용 형태가 무급가족 종사자이고, 주당 근무 시간이 18시간 미만이면 제외),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나 학원/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함.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니트 비율은 19~24세(33.6%)에서 가장 높았음
 - 불안정 노동자 유형 중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미가입인 경우를 의미하는 사회적 보호 불안정이 가장 높았고,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산출한 불안정 노동에서 매우 불안정 비율은 15.8%였음. 취업 청년 중 본인의 전공 분야와 현재 일자리 직무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은 39.4%로, 일치한다는 응답(21.8%)에 비해 약 1.8배 높아 전공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함. 또한, 본인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직무에 하향 취업한 비율은 27.5%로, 상향 취업(17.4%)보다 약 1.6배 높았음

청년 고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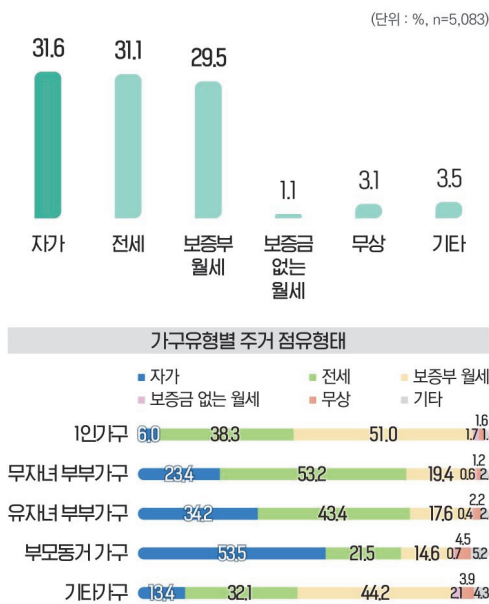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청년의 고용 실태 (2022년 조사)

I 서울 청년의 주거 특성과 주거불안

서울 청년 가구유형에 따라 주거 점유형태 달라... 1인가구 과반이 월세로 거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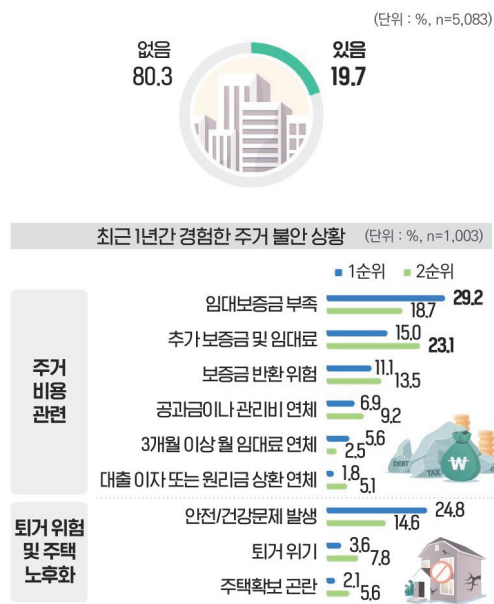
- 부모 동거는 자가 53.5%, 유자녀 부부는 전세 43.4%, 1인가구는 월세 52.7%로 가장 많아
 - 서울 청년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가구의 자가 비율은 53.5%, 유자녀 부부가구 전세 비율 43.4%, 무자녀 부부가구 전세 비율 53.2%로 조사됨. 1인가구의 경우 월세(보증부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음. 또한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할수록 주거 수준과 독립성이 높았음
 - 최근 1년간 주거불안을 경험한 사유에 대해(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매우 높았고,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였음.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불안감을 경험한 비율은 11.1%로 나타남

주거 점유형태



¹ 보증금 없는 월세는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를 합산한 비율임

주거불안 경험



¹ 주거불안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해 분석함 (1순위 1,003명, 2순위 428명)

[그림 5] 서울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 및 주거불안 경험 (2022년 조사)

III. 서울 청년 삶 여건과 정책 인식

I 서울 청년의 경제적 여건과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가구 및 개인 빈곤율과 생활비 부족 경험

- 개인소득 빈곤율 37.0%, 자산빈곤율 55.6%...경제적 어려움엔 부모 의존도 높아
 - 서울 청년의 개인소득 빈곤율은 37.0%, 자산 빈곤율은 55.6%로 조사됨. 빈곤율은 2021년 (소득조사 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연소득 1,587만 원)인 경우로 측정함.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소득 빈곤율이 높았음. 19~24세는 73.4%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행기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자산빈곤은 청년이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균등화 가처분 월 중위소득 50%의 3개월 치 미만일 경우로 정의함. 특히 1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취약성이 드러남
 -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청년은 27.7%였으며, 이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해결 방식을 조사한 결과(1순위 기준, 부모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41.2%) 비율이 매우 높았고, 뒤이어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의 해약(17.7%)이었음. 즉 서울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적이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뒤이어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상대적 빈곤율

개인소득 빈곤율
(n=4,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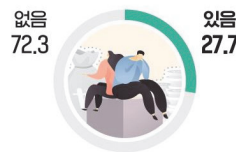
자산 빈곤율
(n=5,015)



(단위 : %)

생활비 부족 경험

(단위 :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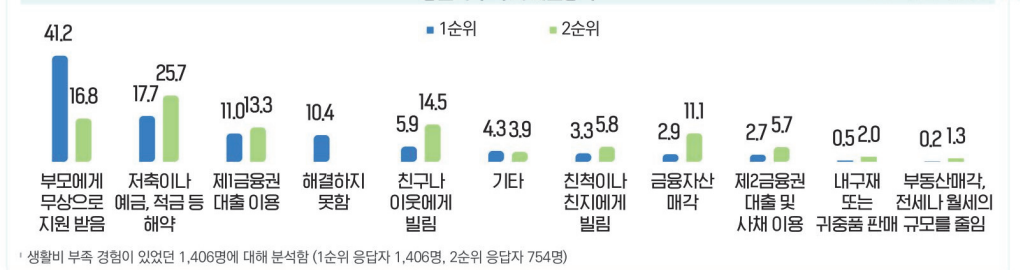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항목에 모두 응답한 경우에 한 해 분석함 (각 4,996명, 5,015명)
*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 생활비 부족시 해결 방법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분석함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식

(단위 : %, n=1,406)



[그림 6] 서울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 및 생활비 부족 경험 (2022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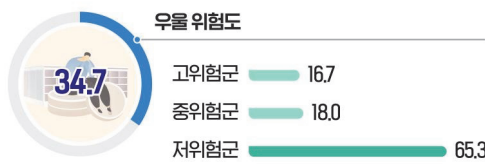
서울 청년 34.7% 우울 증상, 지난 한 달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고립청년 3.4%

- 청년 34.7% 우울 증상 의심돼…사회적 고립 3.4%, 비재학 미취업 청년 우울과 고립 위험 높아
 - 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중 16.7%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됨. 경제활동상태별로 우울 증상 비율을 보면, 비재학 미취업 청년(44.3%)이 가장 높았고, 실업 청년(42.0%)이 뒤를 이었음. 우울 증상 의심은 CES-D11 척도로 측정했고, 척도의 총합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 증상 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했음
 - 한 달 중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물리적 고립상태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 경험 청년 비율은 3.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에서 추정한 규모(4.5%, ±1.18%)와 유사함.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선택(55.9%), 정신적 어려움(36.4%), 대인관계 어려움(24.1%), 취업실패(2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우울 증상 의심

(단위 :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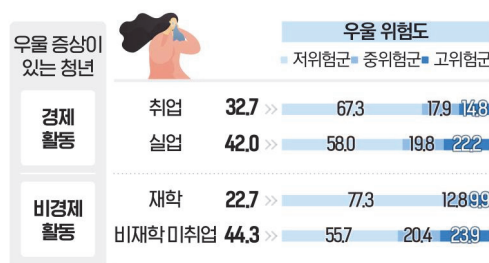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¹ CES-D 11 척도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² 우울 위험도 : CES-D 11 점수에 따라 16점 미만은 저위험군, 16-24점은 중위험군, 25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경제활동상태별 우울 증상 의심



사회적 고립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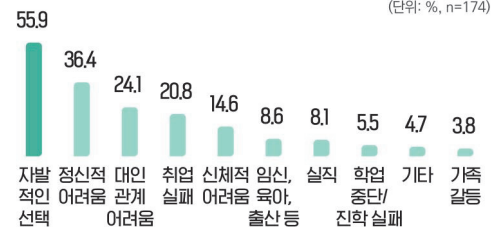
(단위 : %, n=5,083)

사회적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고립 청년이 나가지 않은 이유 (복수 응답)

(단위: %, n=174)



¹ 최근 한 달 간 3주 이상 외출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그림 기] 서울 청년의 우울 증상 의심 및 사회적 고립 경험 (2022년 조사)

I 미래 전망과 삶의 만족도, 청년정책 경험과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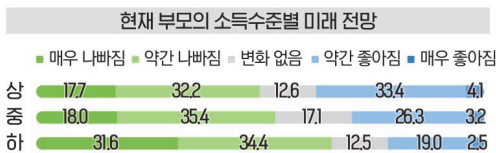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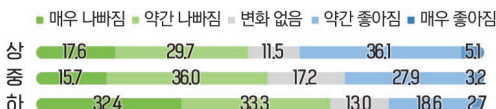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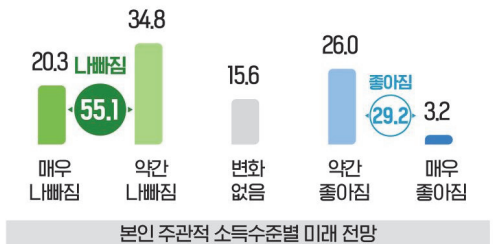
서울 청년의 미래 전망과 삶의 만족도 수준 낮은 편

- 청년 55.1%, 미래 전망 '나빠질 것' 평가...삶의 만족도 평균 5.9점, 경제적 만족도 낮아
 - 30년 후 한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청년의 55.1%가 나빠질 것(매우 나빠짐+약간 나빠짐)이라 평가했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매우 좋아짐+약간 좋아짐)은 29.2%,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6%로 조사됨. 주관적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생활 수준, 건강, 삶의 성취, 관계, 안전 등 13개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 중 평균 5.9점이었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와 나의 안전(6.8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나의 경제적 수준(4.7점)이었음.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미래 전망

(단위 : %,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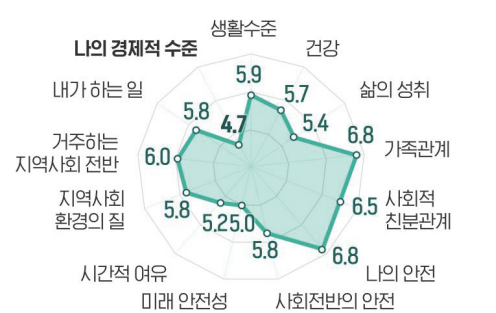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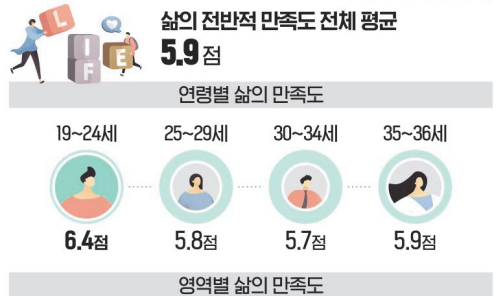
30년 후 한국의 미래 전망은?



1 본인 및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래 전망 나빠짐 비율이 높음

영역별 삶의 만족도

(단위 : 0~10점, n=5,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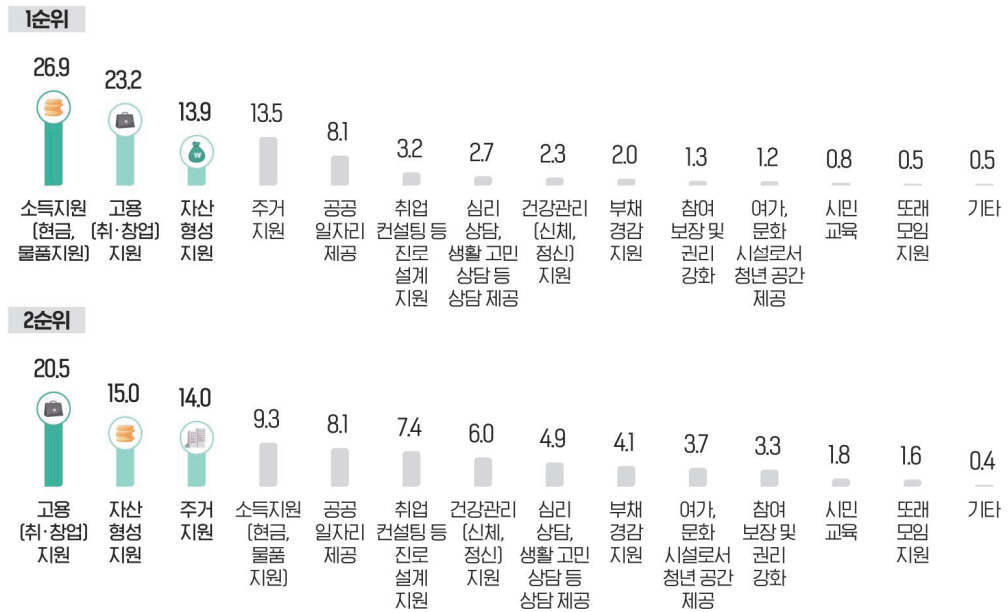
[그림 8] 서울 청년의 미래 전망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 (2022년 조사)

청년의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도움 되는 정책의 인지율, 만족도 높은 수준

-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지율·만족도 다 높아...청년세대 위해 소득·고용 지원 강화해야
 -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중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인지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청년수당의 경우 청년의 65.4%가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 만족도는 92.6%였음.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인지율은 65.0%, 정책 만족도는 90.3%로 매우 높았음
 - 앞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1순위)로는 소득지원(현금, 현물지원) 26.9%, 고용(취·창업)지원 23.2%, 자산 형성 지원(13.9%) 순으로 높았음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단위 : %, n=5,083)



[그림 9] 서울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2022년 조사)

IV. 서울 청년 삶 모니터링 방안

I 서울 청년의 특성 파악하고 수요 전망하기 위한 데이터 고도화 필요

복잡하게 변화하는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삶 모니터링 필요

- 서울 청년의 복합적 위기와 정책 욕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할 필요
 - 성인이행기의 지연, 청년인구가 집중되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 청년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청년문제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서울 청년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집단이라는 점에서 서울 청년의 삶을 모니터링해야 함
 -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에는 세 번째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국사회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 청년의 복합적 위기와 정책욕구를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며,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제1)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서울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청년 삶을 반영한 데이터 생산
 -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 서울은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라는 점에서 청년기의 취약성이 큰 1인가구 청년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 서울 출신 청년은 성인이행 지연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등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교육, 일, 주거, 가족형성 등 이행기 청년의 특성과 더불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청년정책의 성과는 청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 이후의 삶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기 경험과 청년기를 연계해 분석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이와 더불어 새롭게 서울의 청년층으로 유입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횡단면 조사 혹은 2차 청년코호트 패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제2) 서울 청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지표설계와 모니터링
 - 성인이행기의 청년 삶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의 환경과 가용한 자원, 기회를 측정하고, 개인 차원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표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2024년부터 서울청년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리포트(서울청년브리프)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과제3)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
 - 데이터시대의 사회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어떤 데이터로 무엇을, 그리고 누가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지에 따라 데이터의 구조와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플랫폼은 서울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의 특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통계청의 ‘청년통계’,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서울시의 대상자별 실태조사(은둔고립실태조사, 가족돌봄실태조사, 1인가구실태조사 등)와 서베이, 행정데이터 등을 연계해야 함
 - 청년 데이터 거버넌스는 서울청년패널조사 문항 설계와 데이터 생산, 서울청년지표 설계와 모니터링, 지표수집과 분석 과정에 청년과 전문가, 서울시, 시의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역할을 해야 함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